

4차 산업혁명 시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 시나리오* -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 활용을 중심으로 -

Future Scenarios Regarding Domestic Labor and Caregiving by the Baby Boomer Generation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이선형**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김성희***

Dept.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Lee, Sunhyung
Dept. of Social Welfare & Counseling,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Professor Kim, Sunghye

〈목 차〉

- | | |
|-------------|---|
| I. 서론 | IV.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 미래 전망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맞이할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연구방법론인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적용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변화 동인을 파악하고, 노인 및 가족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변화 요인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와 연구진의 의견을 토대로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과 '가족관계 강도'라는 핵심동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핵심동인을 토대로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의 낮음 대 높음'과 '가족관계 약화 대 강화'라는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10년 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4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사노동의 대체 가능성은 크며 가족관계는 약한 '자기 돌봄 형태의 가족 지향',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사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높고 가족관계가 강하게 유지되는 '유연한 형태의 가족 지향',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이 낮고 가족관계는 강하게 유지되는 '전통적 형태의 가족 지향', 네 번째 시나리오는 두 가지 모두가 낮게 나타나는 '공적 돌봄 형태의 가족 지향'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 노인정책 수립,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안정적으로 대비해 가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베이비부머 세대, 가사노동, 돌봄, 시나리오 플래닝

〈Abstract〉

This study forecasts the outlook 10 years from now regarding domestic labor and caregiving by the Baby Boomer generation and the preparations needed in the contex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본 연구는 2022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주저자 : 이선형(yisunh@hoseo.edu), <https://orcid.org/0000-0001-7938-3996>

***교신저자 : 김성희(dustinw@yit.ac.kr), <https://orcid.org/0000-0002-6283-695X>

scenario-planning method was used to explore changing trends in domestic labor and caregiving, the rationale for which has been questioned by both seniors and family welfare exper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our researchers' opinions, it was concluded that the changing trends were caused by two factors: the probability of alterations in domestic labor and the strength of family relationships. On the basis of these conclusions, four scenarios regarding baby boomers' domestic labor and caregiving in 10 years were proposed using two axes: the "high and low probability of alterations" and the "strengthening and weakening of family relationships."

The first scenario is a "preference for the self-caring form of family," which has a high probability of domestic labor alterations and weak family relationships. The second scenario is a "preference for the flexible form of family," which has a high probability of domestic labor alterations and strong family relationships. The third scenario is a "preference for the traditional form of family," which has a low probability of domestic labor alterations and strong family relationships. The fourth scenario is a "preference for the public caregiving form of family," which has a low probability of domestic labor alterations and weak family relationships. These results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various aspects of baby boomers' lives-including the development of various goods and services,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regarding seniors, and programs for successful aging-and can help equip our society to take the actions needed for a super-aged population.

Key words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by boomer generation, domestic labor, caregiving, scenario planning

I. 서론

2025년 일본은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하는 단카이 세대의 5명 중 1명이 75세가 되는 사회를 눈앞에 앞두고 있다. '플랜 75(PLAN 75)'라는 영화는 일본 정부가 75세가 되는 국민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하는 '플랜 75' 제도를 도입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영화화하고 있다. 영화에서 정부는 위로금으로 10만 엔(96만 8천 원)을 주고 이를 받은 노인은 자신의 마지막 생을 정리한다(중앙일보, 2022)는 내용이다. 2025년 한국은 노인인구 900만 명을 돌파하여 노인인구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며, 2030년에는 대부분의 베이비부머가 노인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플랜 75(PLAN 75)'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은 영화가 아닌 것처럼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며 곧 다가올 미래에 어떤 사회가 펼쳐질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노인의 상대적 비중과 절대적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 후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애 말기와 고령후기 관련 논문과 보고서들도 증가하고 있다(김경래 외, 2016; 이선희, 2021). 여기에서는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보며, 성공적으로 자신의 생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또한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실천적 서비스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류는 초고령사회를 보내는 첫 번째 세대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사회변화에 따라 이들의 미래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들어 가족의 변화는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문제, 1인 가구의 증가, 부양인구 감소와 생산인구 감소, 가족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 가치관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에서는 주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증거에 기반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들(김경래 외, 2016; 김경화·최해경, 2019; 김미령, 2011; 서지원·기은광·고선강, 2021; 송시영, 2021)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정해진 미래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래 연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해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그려보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으로 만들어 지금까지의 변화를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다. 모든 생활이 온라인화되고, 가사노동과 돌봄,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 가정이 스마트화되고 도시공간이 스마트 도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족의 고전적 기능은 약화될 것이며, AI돌봄 로봇 등을 이용한 가상 사회적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윤소영, 2022). 가정 내 가전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며 지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스마트홈이 등장할 것이며, 대체 가능한 서비스가 다양화되며, 가사노동의 여가화,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다(조영희, 2022).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사회 불평등을 초래하고 변화 수용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생활양식을 취하게

되면서 개인과 집단 간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적 불만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을 위해 비교적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 문제 접근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는 가사노동 문제가 노년기 동안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며, 자신이 머물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인의 자기 돌봄의 문제는 다른 세대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여러 사회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려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각각에 대한 사회의 현상들을 개괄적으로 그려봄으로써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955~63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2022년 9월 기준 총 7,09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는 거대집단이다(행정안전부, 2022).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재정 상태도 양호하며 사회참여 의식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주목받아온 세대이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언제라도 '학생'이 될 수 있는 세대로, 교육, 일, 은퇴, 휴식기,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삶'을 살아가는 세대를 의미한다(Lynda & Andrew, 2016). 그러기에 노년기를 자아실현의 기회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수명연장과 자녀수 감소 등으로 인해 가족생활주기에서 부부만이 남게 되는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관계의 정서적표현적 측면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서구에서 유입된 '안식처로서의 가정' 이미지를 처음 접하고 내면화한 세대이나, 변화를 내재화하는 속도에 있어서 여성의 빠른 변화 수용에 비해 남성의 느린 변화 수용으로 인한 '남녀지체(gender lag)'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 및 이혼, 성역할 태도, 가치의 차이로 인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한경혜, 2010). 이들은 비교적 건강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주서령, 2022). 1~2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65세 이상에서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김희정, 2022; 이윤

경 외, 2020). 노후를 위해 '노인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이윤경 외, 2020; 통계청, 2010), 향후 가족 결속으로 가족이 강화될 것인지 1~2인가구 유지 성향이 강해질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하였으며, 여가를 중시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최수지, 2016). 공동체 지향의 집합주의와 개인주의가 혼재된 세대로 합리적 미래지향적 사고방식과 생활의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김희정, 2022).

2) 경제적 특성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70~80년대 경제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이며 교육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기반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이은희 외, 2015). 또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에 성숙되면서 2008년부터 20년 납부로 인한 완전연금을 받는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 준비가 이전 세대보다는 정착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안서연백학영, 2019).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과 소비가 위축되었으나 베이비부머 세대는 온라인 시장을 주도한 핵심 소비층으로 지목되면서 '부머쇼퍼'라 지칭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2021).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가 미흡하며 근로소득이 중단될 경우 빈곤 계층을 형성하게 될 집단도 존재하여 경제적 양극화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에 가장 큰 복병은 자녀들의 교육비와 높아진 주택마련 비용이다. 이로 인해 자녀 세대의 결혼이 지연되면서 자녀와 부모 부양이 동시에 이루어져 이들이 '낀세대', '부포족'¹⁾, '마치세대'²⁾, '더블케어 세대'로 부르고 있기도 하다(주서령, 2022; 정순돌·김미혜, 2015; 통계청, 2010). 송시영(2021)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해방전쟁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애과정에서의 소비패턴 유형을 살펴보면, 두 세대의 공통점은 주거비와 공교육비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은 지되 자녀에게 노후부양을 의존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이기도 하다.

3) 기술적 특성

정보화기기 사용의 확대로 디지털기기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기기 접근성이나 이용 능력은 일상생활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예비 노인(55~64세)은 현재 노인에게 비해 디지털 역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화기기 사용 역량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 파악은 디지털 접근성과 디지털 이용역량, 디지털 활용 역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보기기

1) '부포족'은 '자식한테 부양받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의미함.

2) '마치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를 의미함.

보유율을 통해 본 디지털 접근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한국 전체가 높은 편이나 디지털 이용, 특히 활용 역량은 노인집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2021).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이선형·한경아·조좌형, 2021), 노인과 예비 노인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는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과 신문, 잡지 등 뉴스 읽기, 이미지나 유튜브 등의 동영상 시청이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집단 간의 차이도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이메일, 컴퓨터에 의한 SNS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여행, 교통, 숙박 등 위치 정보, TV나 라디오 시청, 게임 등은 예비 노인과 노인, 특히 75세 이상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특성과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가사노동이나 돌봄 관련 이슈 발생 시 이전 세대와는 다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가사노동이 상품화와 기계화 등을 포함한 사회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본다면 이 세대는 이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술에 대한 수용도는 대체로 교육수준에 비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가사노동, 특히 돌봄 영역에서 기술적 변화들에 대한 대처에 좀 더 능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2. 노년기 가사노동³⁾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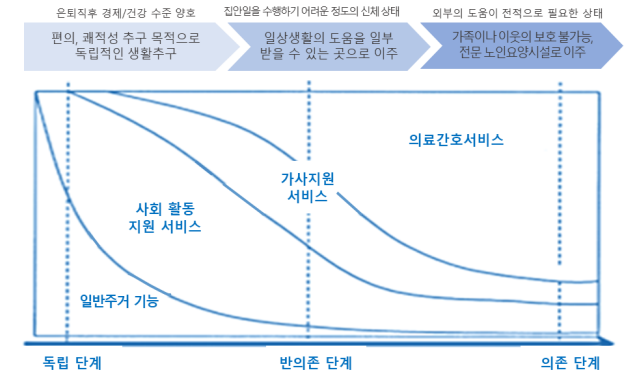
1) 노년기 가사노동의 의미

인간은 나이 들어가면서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누구나 생애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여 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일찍이 도프만이라는 학자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장시간 인터뷰하여 5가지 가치, 즉 자주성(Autonomy), 개인적인 성장(Personal growth), 즐거움(Pleasure), 도움(Helping)과 사회적인 유대(Social ties)를 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Dorfman, 1993). 자주성(自主性)은 사전적 의미로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 공·사적인 도움이 필요해진다. 이는 노인을 위한 UN 원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독립(Independence),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이라는 원칙 중 독립이라는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노년기가 될수록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가 보편적인 경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일을 처리하며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점점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노년기에는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

3) 가사노동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의식주를 포함한 가정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말하며 가족돌봄(아동·노인 등)을 포함할 경우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둘을 포함하거나 혹은 가사노동에서 돌봄노동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도 있다(김의숙·이기영, 2012; 서지원 외, 2021; 송혜림, 2005).

시설 입소나 주거이동을 고민해볼게도 된다. <그림 1>에서 보면 건강상태에 따라 자립단계에서부터 의존단계에 이르기까지 노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이 달라지게 된다.



출처: 신동관(2010)과 권현주(2022)에서 저자 재구성

<그림 1> 노년기 자립단계에 따른 건강 상태 및 필요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노동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노동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삶을 살기 위해 전제되는 것은 건강과 경제적인 상황이었지만, 노년기에 일상의 삶을 위한 가사노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아랫세대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건강이 허락지 않을 경우 가사노동이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외부지원이나 서비스 혹은 시설입소를 고려해야 한다. 가사노동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의 독립적인 삶을 가늠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증가하면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면서도 여가적 성격을 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어 성공적 노화와 연결되기도 하는 의미를 갖는다.

2) 노년기 가사노동 수행의 특성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은 다른 세대와 달리 부인의 가사노동시간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함께 증가하는 정적 관계를 보여 은퇴로 인해 가사노동시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진, 2022; 주재선 외, 2019). 노년기 가사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퇴직 후의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퇴직으로 인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岩井(2004), 이수진, 2022 ‘재인용’). 노년기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자기돌봄이 가능한 젊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기대수명 증가로 건강한 노인 연령의 상승 등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노인의 증가나 1인 가구의 증가가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서지원 외, 2021). 가사노동 수행 영역에서는 여성의 일로 인식되는

| 구분 | 스마트 홈 시스템 (시니어에게 더 절벽하게 필요한 시스템) | 서비스 콘텐츠 (규모의 경제, 공동주거거주지에 적합) | 물리적 공간 (가족축소기 부부 & 1인용 공간) |
|-----|---|----------------------------------|--|
| 기본 | ❖ 홈 IOT+ AI 센서 네트워크 (사용관리 편리, 관리비저감) | ❖ 식사 제공 서비스 | ❖ 시니어 부부용 평면 UNIT (여유 있는 2침실 2욕실 구조) |
| 특화1 | ❖ 집사/간호용 홈 로봇 (텔레프레즌스 로봇, 펫 로봇 등) | ❖ 생활지원(청소/세탁) 서비스 | ❖ 높은 천장의 UNIT (면적 줄어도 답답하지 않은 실내) |
| | ❖ 로봇 모빌리티(헬체어 대신 이동) | ❖ 메디컬 케어(의료) | ❖ 건강안전 자재/디테일/설비 |
| | ❖ 드론 배송/구호 시스템 등 | ❖ 헬스케어 (운동/건강) | ❖ 유니버설디자인 UNIT 옵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적용가능 대키지) |
| 특화2 | ❖ 가상현실(VR) 활용 환경 (교육감해소, 여행체험, 원격 진료&치료) | ❖ 활력(취미) 프로그램 | ❖ 서비스 콘텐츠 운영가능한 다양한 공용공간 |
| | ❖ 웨어러블 활동보조 기기 (서포트신발, e스킨파자마, 손떨림교정 정갑 등) | ❖ 부티케어 (미용/클리닉) | |
| | | ❖ 성취감(기여/봉사) 프로그램 | |
| | | ❖ 교육/일자리 프로그램 | |
| | | ❖ 자산관리/금융서비스 등 | |

출처: 김희정(2022). 베이비부머(baby Boomer) 新노년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트렌드. p.37

〈그림 2〉 스마트 홈 시스템을 위한 Total Aging Tech

식사 준비 및 설거지 등의 가사노동은 부인이 수행하는 반면, 남성은 주택관리, 집수리와 같은 남성적 성격의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어서 가사노동 수행 영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김성희, 2020; 이수진, 2022). 이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여전히 가사노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김미혜·문정화·신은경, 2012; 김영혜, 2004; 이현아·김주희, 2021), 가사노동 수행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가정관리 영역에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키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촉진하여 가사노동 분담을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서지원 외, 2021). 대표적인 가사노동의 사회화로는 판매하는 반조리식품 활용이나 청소대행 서비스 이용, 시간 절약형 청소 및 의류 관리 기구 구입에 의한 활용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활용들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 의한 가사노동 분담 행태에 변화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사노동이 상당 부분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많은 것들 식사와 세탁, 집수리 및 유지보수, 쇼핑, 안전을 위한 많은 활동을 모두 사회화에 의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화(상품화, 기계화 등)가 노년기 삶의 질, 특히 건강과 안전, 독립, 돌봄을 얼마나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의 가사노동 참여는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역할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伊藤, 中仲 & 相良(2009), 이수진, 2022 ‘재인용’; 이현아·김주희, 2021), 가사노동 참여 시간의 증가가 노년기 부부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이는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노년기의 가사노동은 그 이전 단계와 달리 여가적 성격을 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긍정적 가족생활과 노년기 부부관계를 위해 관심을 가져볼만 할 것이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의 활용을 통한 생활이 일상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주문이나 배달앱 사용, AI가 적용된 건강과 안전 체크를 위한 기기들이 필수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한 예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기기 활용이 가능했던 노인은 유튜브 시청, 마스크 구매 어플 활용을 통해 사회적 고립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신혜리 외, 2020; 허성호, 2020).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일상의 삶을 많이 바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가사노동의 영역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김희정(2022)은 주거복지미래포럼에서 베이비부머 신노년의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 트렌드에서 첨단기술 발전의 혜택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스마트홈 시스템을 위한 Total Aging Tech라는 주거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그림 2〉 참조). 연구자가 제안한 스마트홈 시스템의 경우 최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며 이러한 시스템과 서비스는 노년기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자기돌봄을 가능하게 하여 노인돌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10년 후 가사노동과 돌봄을 조망함으로써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에 변화를 가져올 동인을 탐색하고,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여 제시한 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초고령사회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10년 후 가사노동과 돌봄에 미치는 변화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 분야와 가족복지 분야의 현장 및 학계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대상의 선정은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이르렀을때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복지 전문가와 이들의 가사노동과 돌봄영역에 대해서는 가족복지 전문가가 미래 예측에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현장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성별은 여성이 90.99%이고, 교육수준은 대학원 졸업 77.3%, 대졸 22.7%이며, 평균 연령은 51.3세였다. 전문분야는 가족복지 분야 50.0%, 노인복지 분야 50.0%이었다.

3. 조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는 예측이 아니고 비전도 아니다. 시나리오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만약 ~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뒤 내리는 답변이다. 시나리오 플래닝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시나리오 플래닝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공군이 적군의 행동을 예상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된 군사 전략 기법이며, 이를 기업 경영에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가 소개되면서 경영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박희정, 1996).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은 환경 스캐닝을 통해 경향을 읽어내고, 그중 핵심 추동 요인의 예측 스펙트럼을 개발,

스펙트럼의 조합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EU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미래 예측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국제기구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미래 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수준에서 인구사회변화와 미래의 동인에 대한 탐색이나 자국의 경제성장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미시적 차원의 연구는 2011년 이후 4년 동안 진행된 가족생활 혹은 일상적 삶의 구체적인 미래 전망에 관한 연구가 최초 연구에 해당한다(장혜경 외, 2011).

세계미래학회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면, 다수의 핵심 추동요인을 선정하는 대신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일부 시나리오를 선택하거나 양적 방법론과 그림 및 서사구조를 활용한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때로는 일반 대중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 집단의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때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핵심 동인을 도출해 내고 있다(장혜경 외, 2011).

이 연구에서는 Lindgren & Bandhold(2006), Montgomery(2008), 고인규(2018), 문대영(2008), 안세운 외(2020), 장주희 외(2013), 장혜경 외(2011)가 소개한 핵심 동인으로부터 시나리오를 추출하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적용하여 <그림 3>과 같이 진행하였다.

조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단계1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관련한 광범위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진이 시나리오 변수를 구성하되, 안세운 외(2020) 연구에서 사용한 STEEP-V⁴⁾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한 분야 당 2~4개씩 속하도록 구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이를 설문지로 구성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경기도 및 충청남도예 근

| 단계 | 단계1 시나리오 변수 선정 | 단계2 시나리오 핵심변수 선정 | 단계3 시나리오 개발 |
|----------------|--|--|---|
|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도 평가 연구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실성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나리오 개발 |
| 참여 및 정보 제공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복지전문가 11명 가족복지전문가 11명 연구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진 |

<그림 3>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단계별 조사 방법

4) STEEP-V라는 것은 Social, Technological, Economical, Environmental, Political-Value의 약자로 시나리오 구성에 대해 다방면을 고려하도록 함

무하는 노인 및 가족복지 전문가 22명을 유의 표집방법⁵⁾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은 개발된 18개의 변화요인들이 '10년 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를 활용하여 평가하게 하였고, 이 변화요인 중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요소로 생각되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부터 1~3순위로 평가하게 하였다. 조사된 의견을 SPSS ver. 25를 통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미래 가사노동과 돌봄에 영향을 미칠 변수 중 가장 영향력 있는 핵심 동인을 선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핵심동인을 근거로 미래 가사노동과 돌봄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IV.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 미래 전망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

1. 가사노동과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과 핵심 동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변화와 관련된 변인의 영향력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부양인구(생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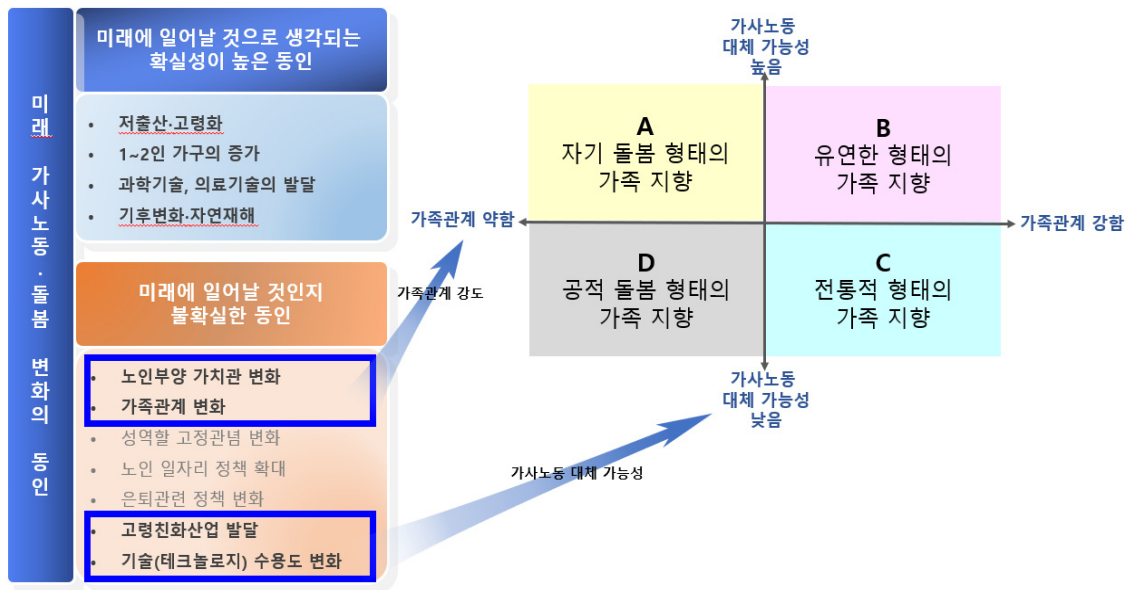
능 인구) 감소 4.91점, 저출산·고령화 4.86점, 공적 돌봄 제도 강화(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돌봄 등) 4.77점의 순으로 주된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은 4.36점이었다. 시나리오 분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다. 이에 각 변화 요인에 대한 변화의 확실성 여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진이 판단하였으며, 변화 요인 중 영향력의 중요도가 평균 4.36점 이상이면서 변화가 불확실한 요인 모두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최종 선택된 핵심 동인은 '고령친화산업 발달', '노인부양 가치관 변화', '기술(테크놀로지) 수용도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이었다. '고령 친화 산업 발달'과 '기술(테크놀로지) 수용도 변화'는 가사노동을 기계로 대체하거나 시장의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가사노동 사회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으로 통합하였다. '노인부양 가치관 변화'와 '가족관계의 변화'는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약화와 가족 중심의 가치관 약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가족관계 강도'로 통합하였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의 낮음 대 높음'과 '가족관계의 약화 대 강화'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하는 10년 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 시나리오 프레임을 구성하고(<그림 4> 참조), 이를 바탕으로 네 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표 1> 변화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확실성 평가

| 변화 요인 | 영향력의 중요도 | | 확실성 | 핵심 동인 | |
|-----------|---------------------------------------|------|-----|-------|---|
| | 평균 | 표준편차 | | | |
| 사회 (S) | 저출산·고령화 | 4.86 | .35 | 확실 | |
| | 부양인구(생산가능 인구) 감소 | 4.91 | .29 | 확실 | |
| | 1~2인 가구의 증가 | 4.73 | .55 | 확실 | |
| 기술 (T) | 기술(테크놀로지) 수용도 변화 | 4.45 | .67 | 불확실 | ○ |
| | 과학기술의 발달(돌봄 로봇,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 등) | 4.59 | .50 | 확실 | |
| | 의료기술의 발달(건강증진, 생명 유지, 치료제 개발 등) | 4.50 | .51 | 확실 | |
| 경제 (E) |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력 상승 | 3.95 | .72 | 불확실 | |
| | 주거 상황의 변화(주택가격 상승, 주택 크기 다양화 등) | 3.95 | .79 | 불확실 | |
| | 고령 친화 산업 발달(고령친화식품, 여가산업, 노인용품 등) | 4.50 | .60 | 불확실 | ○ |
| 환경 (E) | 팬데믹 일상화 | 3.95 | .65 | 불확실 | |
| |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 4.00 | .87 | 확실 | |
| 정책 (P) | 은퇴 관련 정책 변화(정년 연장, 귀농·귀촌 정책 등) | 4.18 | .59 | 불확실 | |
| |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돌봄 인력 부족으로 인한) | 3.95 | .65 | 불확실 | |
| | 노인 일자리 정책 확대(일자리 증가 및 다양화, 사회참여 확대 등) | 4.23 | .75 | 불확실 | |
| 가치 (V) | 공적 돌봄 제도 강화(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돌봄 등) | 4.77 | .43 | 확실 | |
| | 노인부양 가치관 변화 | 4.45 | .74 | 불확실 | ○ |
| |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 | 4.18 | .66 | 불확실 | |
| | 가족관계의 변화(부모-자녀 관계 중심에서 부부 중심) | 4.41 | .67 | 불확실 | ○ |
| 전체 | | 4.36 | .26 | - | |

5)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응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유의 표집방법 사용



〈그림 4〉 미래의 가사노동과 돌봄 시나리오 프레임 워크

2.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 전망 : 네 가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A : 자기 돌봄 형태의 가족 지향(가족관계 ↓, 대체 가능성 ↑)

돌봄을 제공할 세대인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가 독신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무자녀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족이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 그렇다 보니 자녀세대는 그 자식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없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서 자신의 경제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풍부한 소득을 바탕으로 가사노동을 사회화(상품화하거나 서비스로 대체)하려는 성향이 많다 보니 이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식품과 가사노동 대체에 대한 서비스 등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의 단위가 가족이라는 기초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진다. 노인 돌봄의 문제도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의 상승이 기술 수용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돌봄 로봇이나 스마트홈 등 가사노동에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에 적극적이다. 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화 교육이나 이를 지원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돌봄 인구 부족은 필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고려해 보게 된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나를 돌보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이들이 공동체 가족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주택 크기가 감소할 것이고 가사노동의 대체가 활발하다 하더라도 노년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자기 돌봄에도 한계가

오게 되면 시설에 대한 필요가 생기며 이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필요하게 된다. 스스로 돌봄이 필요하다 보니 대체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많고 이에 대한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2) 시나리오 B : 유연한 형태의 가족 지향 (가족관계 ↑, 대체 가능성 ↓)

노년기가 되면서 학력이나 건강,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가족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임에 따라 가족은 여러 형태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기가 살던 지역사회에 Aging in place 이념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귀농이나 귀촌을 선택하여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가족, 혹은 전원과 도시 양쪽을 오가는 형태의 가족, 아예 공동체 가족을 이루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가족도 있다.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가족들도 자녀와 함께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등 자연스럽게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된다.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가사노동 대체도 잘 받아들여서 노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된다. 멀리서 사는 자녀들과의 소통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여 서로 멀리서 살아도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나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 자녀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특히 가족 간 자원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족 관계적인 것을 지원하는 산업들과 건강과 안전을 넘어서 교육이나 여가를 지원하는 산업도 발달하게 될 것이다.

3) 시나리오 C : 전통적 형태의 가족 지향 (가족관계 ↑, 대체 가능성 ↓)

현재를 살아가는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유지되는 형태이다. 기존의 가사노동 방식을 고수하고 명절이나 행사 때에 직접 만남을 통해 가족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가사노동을 기계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대체하는 데에 있어 소극적임에 따라 가정 내에서 현재와 같은 시간의 가사노동이 수행되어야 가정이 유지가 될 것이다. 노년기가 되어 부부나 1인 가구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노부모나 자녀 돌봄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은 가족과 함께하면서 여가적인 성격을 띠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서로의 부양 부담과 2, 3세대가 함께 함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세대 차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점에 대한 세대 간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발달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산업의 성장이 일자리 제공부터 다양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관련 업계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시나리오 D : 공적 돌봄 형태의 가족 지향 (가족관계 ↓, 대체 가능성 ↓)

1, 2인 가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가사노동의 상품 혹은 서비스 대체는 느리게 진전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1, 2인 가구는 가정 유지를 위한 가사노동을 스스로 해야 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이러한 가정 내 노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어난다. 독립적인 삶을 위해 건강이나 경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짐에 따라 이들을 돌볼 자원과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 이념을 유지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공공의 가사서비스지원센터가 생겨나 가사와 돌봄을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가 재정적인 여력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공존한다. 이에 따라 노후문제에 있어 양극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주택의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시설 입소를 통해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도 늘어난다. 이들이 가정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지원을 위한 공공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가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10년 후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

해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노인복지 분야와 가족복지 분야의 전문가 총 2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핵심 동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핵심 동인은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과 '가족관계 강도'이며, 이를 토대로 4개의 시나리오가 도출되었다. 즉 가사노동의 대체 가능성은 크며 가족관계는 약한 '자기 돌봄 형태의 가족 지향', 가사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높고 가족관계가 강하게 유지되는 '유연한 형태의 가족 지향',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이 낮고 가족관계는 강하게 유지되는 '전통적 형태의 가족 지향', 두 가지 모두가 낮게 나타나는 '공적 돌봄 형태의 가족 지향'이며, 이에 대한 각각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 예측을 통해 '가족관계의 강도'와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 등에 따라 4개의 시나리오가 도출되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가사노동과 돌봄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유형별 생활양식에 적합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윤소영(2022)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성별, 연령, 살아온 경험에 따라 욕구가 다양하며,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원의 대상이 되기도, 소비의 주체가 되기도 하므로 욕구기반의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공동체 가족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가족이 추구하는 생활양식을 수용하고 이들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 공동체 가족을 위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개발, 제정될 필요가 있다. 마음에 맞는 1인 가구들이 모여 공동체 가족을 형성하면 1인 가구로 살 때에 비해 전기세, 수도세 등의 누진과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공동체 가족을 위한 세제 혜택을 비롯하여 공동생활가정 인가 기준 완화 등의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귀농·귀촌과 같은 생활양식을 선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는 정착지원금 제공, 적용 교육 등의 제도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양식을 수용, 그들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또는 원하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자기돌봄과 타인 돌봄의 자조적이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가사노동과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과 공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돌봄 수요는 증가하나 돌봄을 제공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돌봄 인력 부족에 대비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초연결, 초지능, 초 융합의 특성을 반영한 기계가 개발되거나, 돌봄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판매된다면 이들의 삶은 훨씬 윤택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규모와 욕

구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거나, 과학기술을 접목한 의료서비스,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 및 기구들이 개발, 공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은 구매력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나 구매력이 없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와 등급의 자에게 제공되는 재가복지서비스가 아닌 시장형 노인돌봄서비스인 ‘엄마를 부탁해’의 서비스 이용료를 보면 외출 동행의 경우 1일 15만 원으로 고비용 지출의 문제가 야기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이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어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고령자들을 위한 상품 개발 시 정부의 초기 투자 비용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상품가격을 낮추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가사노동과 돌봄을 위한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식 개선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한다. 이때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성공적인 노후의 의미,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가사노동과 돌봄 방법의 다양성, 역할변화와 역할 참여, 갈등관리, 자원관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 지향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수용과 인식 전환을 위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가사노동과 돌봄의 사회화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그동안 가족자원경영학은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사회가 이행되면서 가족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각자의 삶을 구성해 가는지에 대해 연구해 왔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을 비롯하여 가사노동과 돌봄의 문제와 관련된 실천적이고 제도적인 연구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조영희, 2022). 그러나 돌봄 로봇 개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고령친화 상품과 사회서비스 개발 등의 영역에 가족자원경영학자가 참여하는 일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초고령사회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천학문을 연구하는 가족자원경영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령친화산업과 돌봄 서비스 개발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미래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련 분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등의 산학연계형 연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는 노력

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연구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고 양적 방식과 질적 방식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에는 전문가의 양적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와 전문가에 대한 양적, 질적 의견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둘째, 미래 연구에서의 예측 시점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10년 후의 변화를 상정하고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시행하여 비교적 미래 예측 연구의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변화를 예측하였다. 향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15~20년 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후기 노년기를 보내는 모습까지도 예측이 필요할 수 있다. 비록 단기적인 변화라 하더라도 출산율의 빠른 저하, 가족 가치관의 빠른 변화, 1, 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측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연구 방법인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 모습을 그려내고 이를 통하여 가사노동과 돌봄 관련 정책입안자나 학계의 연구자, 현장의 실천 전문가들이 미래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차후에 위와 같은 제한점과 한계를 극복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고인규(2018).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을 통한 미래교육에서 실과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실과교육연구, 24(3), 31-45. DOI : 10.29113/skpaer.2018.24.3.031.
- 2) 권현주(2022). 베이비부머 신노년의 주거이동 및 선호. 제3회 주거복지미래포럼.
- 3) 김경래 · 황남희 · 정진욱 · 송기민 · 양찬미 · 이수현(2016). 초고령사회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김경화 · 최해경(2019). 노화태도와 자기돌봄실천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9 학술대회자료집.
- 5) 김미령(2011).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준고령세대 여성의 삶의 질 구성요소 비교 연구. 노인복지연구, 51, 7-34.
- 6) 김미혜 · 문정화 · 신은경(2012). 베이비부머의 부부관계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예비노인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3), 213-241.
- 7) 김성희(2020). 노년 세대의 가사노동 인식과 경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0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8) 김영혜(2004).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유배우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영향에 대하여. 한국인구학, 27(1), 1-30. UCI : G704-000152.2004.27.1.001.
- 9) 김외숙 · 이기영(2012).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10) 김희정(2022). 베이비부머(baby Boomer) 新노년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트렌드. 제3회 주거복지미래포럼.
- 11) 동아일보(2021.6.22). 자녀 도움받아 쇼핑앱 깐 5060,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은....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622/107568489/1>.
- 12) 문대영(2008). 실과교육의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을 통해. 실과교육연구, 14(1), 1-20. DOI : 10.17055/jpaer.2008.14.1.1.
- 13) 박희정(1996). 시나리오 經營이란. CEO Information, 40, 9-24.
- 14) 서지원 · 기은광 · 고선강(2021). 한국 여성과 남성의 세대별 가사노동시간의 변화(1999-2019):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시간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2), 53-78. DOI : 10.22626/jkfrma.2021.25.2.005.
- 15) 송시영(2021). 생애과정 관점에서 본 베이비부머와 해방전쟁 세대의 소비패턴 유형과 전이 양상.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송혜림(2005). 가사노동론. 울산 : 울산대학교출판부.
- 17) 신동관(2010). 연속보호체계형 노인공동주거시설(CCRC) 공용공간 체크리스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신혜리 · 윤태영 · 김수경 · 김영선(2020).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고령자 일상생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기술 사용과 노인복지관 참여 제한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5(4), 207-232. DOI : 10.21194/kjgsw.75.4.202012.207.
- 19) 안서연 · 백학영(2019). 베이비부머의 소득, 소비, 자산의 구성과 분포 변화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20) 안세민 역(2020). 100세 인생, Lynda, G. & Andrew, J. S.(2016), The 100-Year Life: Living and Working in an Age of Longevity, 서울 : 출판사 클.
- 21) 안세윤 · 이상호 · 윤정중 · 김소연 · 주하나 · 김성환(2020). STEEP-V 방법론을 활용한 미래주거예측 및 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6), 230-240. DOI: 10.5392/JKCA.2020.20.06.230.
- 22) 윤소영(2022). 4차 산업혁명 시대, 베이비부머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지원 산업과 정책. 베이비부머세대 대상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한 이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2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23) 이선형 · 한경아 · 조좌형(2021).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노인의 특성 연구. AI와 인간사회, 3(1), 137-163.
- 24) 이선희(2021). 노인 생애단계별 삶의 질 다중계적. 이화여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5) 이수진(2022). 노년기 부부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 이후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 변화.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1), 43-58. DOI : 10.22626/jkfrma.2022.26.1.004.
- 26) 이은희 · 김경자 · 이성림 · 유현정 · 차경욱 · 이영애 · 이준영(2015). 세대별 가계경제구조 비교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2), 197-227.
- 27) 이윤경 · 김세진 · 황남희 · 임정미 · 주보혜 · 남궁은하 · 이선희 · 정경희 · 강은나 · 김경래(2020). 2020년도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8) 이현아 · 김주희(2021).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연구 :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Y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71-86. DOI : 10.22626/jkfrma.2021.25.4.006.
- 29) 이주명 역(2012), 시나리오 플래닝-미래예측과 전략수립의 기법. Lindgren & Bandhold, (2006), Scenario Planning, 경기: 필맥.
- 30) 장혜경 · 김은지 · 김영란 · 정재훈 · 김혜영(2011). 가족의 미래와 여성 · 가족정책 전망 (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1) 정순돌 · 김미혜(2015). 한국 베이비부머의 삶과 미래. 서울 : 학지사.
- 32) 장주희 · 한상근 · 이지연 · 서용석(2013).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한 미래의 직업생활 분석: 직업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2(4), 41-58.
- 33) 조영희(202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정생활과 가족자원경영학의 미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2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34) 주서령(2022). 베이비부머 신노년의 고민과 주거대안. 제3회 주거복지미래포럼자료집.
- 35) 주재선 · 김영란 · 이동선 · 정성미 · 송치선 · 한진영 · 이진숙 · 양준영 · 손창균 · 장숙량(2019). 2019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6) 중앙일보(2022.10.12). 경제 좀먹는 노인 “총살...이젠 실갈다”는 섬뜩한 이 영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8389>.
- 37) 최수지(2016). 베이비부머 소비자의 온라인을 통한 외식정보 채널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6(3), 711-726. UCI : G704-000573.2016.36.3.005.
- 38)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 통계청.
- 39) 한경혜(2010).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에 대한 이해. ‘위기의 베이비부머세대, 사회적 해결책은 있는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2010 심포지엄자료집.
- 40)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2021).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 41) 허성호(2020). 디지털 격차가 노인의 디지털 일상생활에 미

- 치는 영향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8(9), 9-15.
- 42) 행정안전부(2022.9). 연령별 인구현황. 행정안전부.
- 43) Dorfman, R. A.(1993). Aging into the 21st Century: the Exploration of Aspirations and Values, Brunner/Mazel.
- 44) Montgomery, A.(2008). US Families 2025: In search of future families. Futures, 40(4), 377-387. DOI : 10.1016/j.futures.2007.08.005.

- 투 고 일 : 2022년 12월 28일
- 심 사 일 : 2023년 01월 06일
- 게 재 확 정 일 : 2023년 01월 17일